

국내 창작물, '우리 것'에 관심 부쩍

특집/불황기에도 기획은 계속된다

어린이

“ 전반적인 경제위축 속에 올봄 어린이 출판물 역시 양적으로 부쩍 줄어든다.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획 시리즈와 국내 창작물이 대세인 가운데 '우리 것'에 대한 관심도 두드러진다. 난국을 헤쳐가려는 노력이 질 높은 창작기획물로 열매 맺길 기대해 본다.”

올봄 어린이 출판은 국내 창작물과 기획시리즈물이 대세다. 한때 활발하게 나온 수입그림책이 환율급등에 따라 주춤하면서 국내 창작물 출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. 출판의 제작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모험이 예상되는 단행본보다는 이미 시작해 놓은 시리즈물을 펴내거나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획물을 준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.

책읽기 관심 환기시키는 시리즈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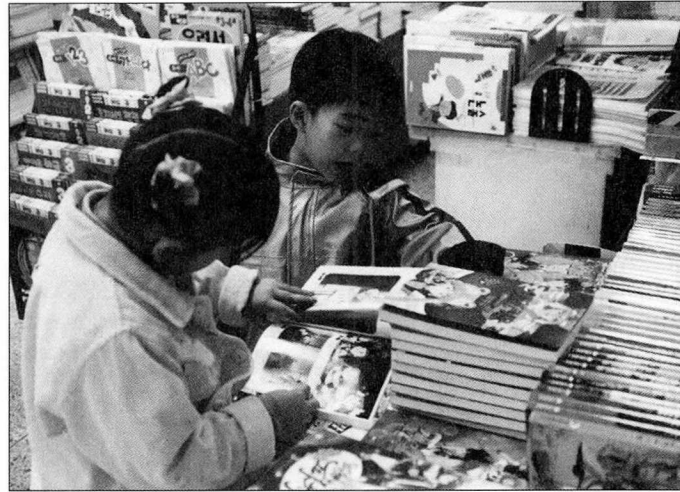
올봄에는 유아용 책이 유난히 많이 선보인다. 지경사는 각각 6권씩으로 구성된 <초롱초롱 IQ BOOK>, <뜨랑뜨랑 EQ BOOK>, <도란도란 MQ BOOK>를 내놓는다. 만 1~3세 유아들을 위한 책으로 단순하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생활습관이나 사고를 길러준다.

다섯수레도 <쑥쑥 몸놀이>를 출간한다. 부모와 아이가 놀면서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놀이그림책으로 <도리도리 짹짹>, <오리처럼 뒹뒹> 등 5권으로 구성됐다. 다양한 몸동작으로 신체발달을 돕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쌓을 수 있다. 보림 역시 유아용 생활그림책을 기획하고 있다. 일상생활·주변사물·동물·식물 등 네 가지 주제의 정보를 담은 <카탈로그> 시리즈(가칭)와 전래동요에 맞춰 동작을 따라하는 <전래동요 체조책> 등을 작업하고 있다.

이제 막 글을 익힌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시리즈도 눈에 띈다. 국민서관의 <슬기샘 큰 동화> 시리즈는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궁금증을 내용으로 한 그림과학동화다. 이미 2권이 나와 호응을 얻었는데, 4월 중에 셋째권 <형아 손은 약손>(박덕규)을 출간한다. 어른이 집을 비운 사이 배탈이 난 동생을 위해 백과사전을 보고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알게 된다는 내용.

이처럼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책

어린이 출판물 역시 모험이 예상되는 단행본보다 이미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획 시리즈물을 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.



들은 아동들이 독서에 재미를 붙이거나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. 학습단계별로 <나는 책읽기가 좋아> 시리즈를 낸 비룡소는 책을 처음 읽는 어린이를 위한 책을 5월에 출간할 예정인데, 우리 전통놀이와 옛 이야기, 수수께끼·전래동요를 담는다. 창작동화를 지속적으로 내온 '여명'도 책읽기 능력에 따른 읽기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있다. "국내 기획창작물을 주로 하고 번역물도 포함시킬 생각"이라고 이지훈 차장은 말한다.

국민서관의 <굿나잇 EQ 스토리>도 어머니가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려주도록 꾸며 독서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르는 데 역점을 두었다. 월별로 창작동화, 해외명작동화, 동시, 전래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골랐는데, 절기와 날짜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넣어 학습효과도 염두에 뒀다.

'우리 것' 소재로 한 출판물도 활발

어린이가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확대해가는 매개로 책을 활용하는 기획물도 선보인다. 길벗어린이는 유아용 그림지도서 <열린 미술교육> 3·4권을 준비하고 있다. 미술전문교육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술교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박금숙 씨가 미술을 전공한 남편 문성근 씨와 함께 <우리집과 물건 그리기>, <내가 사는 마을 그리기>를 만든다.

길벗어린이가 펴낸 <사물놀이>는 사물놀이패의 모습을 그린 책인데, 어린이 그림책으로는 보기드문 석판화로 작업했다. 초등학교 대상의 <내가 되고 싶은 나>(대교출판)는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을 실제 모델을 통해 소개한다. 현재 5권까지 나와 있는 이 시리즈

를 4·5월 중에 10권으로 완간하려는 계획이다. 한국과학기술원의 로봇 응용 및 유공암 연구팀 연구원인 김문상, 호서대 음악대학 교수이자 피아니스트인 허원숙, 축구선수 홍명보 등의 실제 일상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어 과학자, 피아니스트, 축구선수의 꿈을 현실로 보여준다.

길벗어린이의 <사물놀이>와 대교출판의 <내가 되고 싶은 나>는 기획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실제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을 취재해 밑그림을 그리고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의 연구교육부장인 김동원 씨가 내용을 감수하고 구음을 달아준 <사물놀이>, 또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, 실제 모델을 고르는 등 기획하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린 대교출판의 <내가 되고 싶은 나>는 기획출판의 새 모형을 보여준다.

전래동요나 옛놀이 등 유아용 도서에도 '우리 것'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, 창작물도 전에 없이 활발하다. 비룡소는 4월 안에 <규중칠우쟁론기>를 이영경 씨의 그림으로 발간한다. 동양화풍의 그림에 조선시대 산문인 <규중칠우쟁론기>를 원본으로 해 '우리 냄새'가 진하다. 박상희 기획위원은 "국내 어린이 출판물의 역량은 외국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"고 전제하고 상반기는 창작 그림동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다.

그동안 '네버랜드'와 '시공주니어'의 이름으로 번역서를 많이 낸 시공주니어도 창작동화를 시작한다. 현재 노경실의 <아버지와 아들>(가제), 조순자의 <마주보고 크는 나무>(가제)를 만들고 있다. 시공주니어의 이광자 과장은 "국내 작가층이 두텁지 않아

작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"며 "너무 교훈적이거나 또 흥미만을 추구하는 책이 아닌 우리 정서에 맞는 좋은 동화를 만들겠다"고 포부를 밝힌다.

서정오 선생님의 <옛이야기 보따리>를 꾸준히 내온 보리는 3월말이나 4월초에 10권을 출간해 시리즈를 완간한다. 4월말에 출간 기념회를 가질 생각인데, 남우희 편집장은 "옛이야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자리가 될 것"이라고 우리 옛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.

학습도서도 다양한 형태와 관점으로 기획

어린이 책의 단골메뉴인 위인전기와 학습도서도 다양한 형태와 관점으로 기획되어 흥미를 끈다. 여명은 만화 <장보고>(김종욱 글·그림, 전5권)를 펴낸다. 장보고에 대한 찬양일변도가 아닌 철저한 자료연구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시도할 생각이다. 또 예림당의 <역사인물 탐구서>도 이번에 넷째권 <대한남아 안중근>을 출간한다. 강인한 투사로만 인식되었던 안중근을 교육사업가나 온건한 평화주의자로 재조명해 새로운 시각이 돋보인다.

지경사의 <우리나라 국토순례기>와 보리의 <동물도감>은 현장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습서들이다. 우리 국토를 산·강·해안으로 나누어 저마다의 특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민 <우리나라 국토순례기>는 초등학생들이 국토 순례를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전한다. 보리는 <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>에 이어 <동물도감>을 준비 중이다. 사진이 아닌 그림이라 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, 특히 찾아보기를 초등학생 교과과정에 맞춰 펴냄으로써 활용도를 높인다. 각 분야별로 집필을 전문가에게 맡겨 정확한 내용을 담은 것도 장점이다.

전반적인 경제위축은 어린이 출판에도 예외가 아닌 듯 싶다. 어린이 출판물이 양적으로 부쩍 줄었고, 길벗어린이의 고대영 주장은 "상반기 출간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"이라는 말로 어려움을 표현했다. 모험이 예상되는 어린이 단행본 출판보다는 시리즈물의 출간으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가려는 출판사들의 노력이 질 높은 창작기획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해 본다. — 이현주 기자